

의정칼럼



채은지
광주시의회 부의장

“수많은 알 수 없는 길 속에 희미한 빛을 난 쫓아가. 언제까지라도 함께 하는 거야, 다시 만난 나의 세계.”

국회 앞 광장에서 소녀시대의 노래가 울려 퍼졌다. 색색의 응원봉을 든 2000 여성들이 거리로 나와 자신들의 목소리를 힘 있게 드러냈다. 계엄령 선포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안 가결까지 이어진 이 과정에서, 이들의 존재는 광장을 가득 메우며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하지만 이들의 참여는 이번만의 일이 아니다. 2000 여성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변화를 이끄는 주체로서 늘 광장에 있었다.

서울시 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된 집회 참여 통계에 따르면 12월7일 탄핵안 표결 당시 20대 여성은 전체 참여자의 18.9%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모든 성별과 연령대 중 가장 두드러진 수치다. 이들은 SNS와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쌓아온 연대감과 정의감을 바탕으로 행동에 나섰다. 2008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 2016년 박근혜 퇴진 촛불집회에서도 이들은 변화를 이끄는 주요 동력이었다. 이번 집회에서도 2000 여성들은 자신의 자리를 굳건히 지켜냈다.

2030 여성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다

반면, 이번 집회에서 두드러지게 낮아진 것은 2000 남성의 참여율이었다. 20대 남성은 전체의 3.3%, 30대 남성은 5.3%에 그쳤다. 이는 과거 집회에서 주요한 역할을 했던 남성들의 참여율과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일부 전문가들은 남성들이 집회 대신 온라인 플랫폼에서 의견을 표출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한다. 또 다른 견해로는 경제적 불안정과 군 복무 등 생애 주기에 따른 현실적 제약이 이들의 참여를 제한했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준석 전 대표 또한 남성들의 낮은 참여율을 군 복무로 설명했으나, 2008년과 2016년 집회 당시 남성들의 높은 참여율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떨어진다. 젊은 남성들의 정치적 무관심의 배경에 대해 더 깊이 있는 분석이 필요하다.

다시 2000 여성들의 참여로 시선을 돌려보면, 국제 언론들도 이러한 현상에 주목했다. BBC는 서울시 데이터를 분석하며 20대 여성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러한 현상은 2016년 박근혜 탄핵 집회 때와 유사하며, 젊은 여성들의 정치적 행동력이 계속해서 한국 민주주의의 중요한 축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BBC는 또한 이들의 참여가 단순한 숫자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조직적이고 연대적인 힘으로 나타난다고 강조했다. 영국 가디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선 당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며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으로 젠더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젊은 여성들이 저항의 상징으로 K팝 응원봉을 들고 거리로 나섰다고 분석했다. 프랑스 르몽드는 “1

0대 소녀와 젊은 여성들이 윤 대통령의 반여성주의적 태도에 맞서 가장 적극적으로 저항했다”고 보도하며, 이들의 정치적 주체성을 높이 평가했다. 특히 르몽드는 윤 대통령을 “항상 반여성주의적이었다”고 규정하며, 이들의 저항이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분석했다.

2000 여성들의 정치적 행동력은 단순히 수치로 측정할 수 없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들은 촛불집회 때부터 광장의 중심에서 변화의 주체로서 자리해왔으며, 이번 탄핵 과정에서도 단순히 과거를 바로잡는 데 그치지 않고, 모두가 존중받는 평등한 사회로 나아가는 출발점이 됐다. 정치권과 언론은 이들의 행동을 단순히 배경으로 소비하는 것을 넘어,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이들이 기여한 공로를 온전히 인정하고 평가해야 할 것이다.

탄핵은 단순히 과거를 바로잡는 일이 아니다. 이는 모두가 존중받고 평등한 기회를 누리기 위한 새로운 세계의 시작점이다. 2000 여성들이 보여준 연대와 행동력은 단순한 순간의 기쁨이 아니라, 지속 가능한 변화를 만들어갈 힘이다. 이들이 만들어가는 미래는 다양성이 존중받고 차별과 혐오가 없는 진정한 민주주의의 사회로 나아가는 길을 밝히고 있다. 광장에서 빛난 2000 여성들의 응원봉은 이제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새로운 상징으로 자리 잡았다.

2000 여성은 언제나 광장에 있었고, 언제까지라도 함께 할 것이다.

다시 만날 우리의 세계를 위해.

현장칼럼



노효경
광주 북구가족센터장

연말연시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계획하는 시기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빼놓을 수 없다. 이맘때면 언론 보도에서 해남이와 해운이를 가족들과 함께 즐기는 모습과 가족의 건강과 안녕을 기원하는 인터뷰를 자주 접할 수 있다. 최근 방영된 드라마 ‘조립식 가족’이라는 제목을 보며 다소 낯설게 느껴졌지만 변화하는 가족 이야기를 잘 담아냈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통적인 가족의 형태에서 가족 변화의 역동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으며, 기존의 혼인과 혈연중심의 가족을 넘어 다양한 방식의 관계 맺음으로 가족의 모습이 달라지고 있다.

핵가족의 전행으로 여겨졌던 부모와 자녀로 구성된 3-4인 가족으로 함께 사는 모습은 더 이상 우리 사회의 전형적인 모습이 아니다. 5인 가족 내에도 화업으로 가족사에서 생활하는 1인 가구 자녀, 직업으로 다른 지역에서 근무하며 주말부부로 지내는 부모, 비싼 임대료를 나누어 친구와 함께 생활하는 셰어하우스 가구, 사실혼이나 동거 커플 가구 등 가족이 함께 살아가는 모습을 살펴보면 그 양상이 매우 다양하다.

건강가정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가족은 혼

모든 가족을 든든하게 가족센터

인·혈연·입양으로 이뤄진 사회의 기본단위로 한정돼 있어, 변화하는 가족의 삶을 모두 포괄하기에는 부족하다. 이에 따라 ‘가정’의 개념이 추가돼 가족 구성원이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 하는 생활공동체로서 구성원의 일상적인 부양·양육·보호·교육 등이 이뤄지는 생활단위로 정의된다.

‘조립식 가족’에서처럼 여성가족부(2021년) 발표에 따르면, 국민 10명 중 7명은 혼인이나 혈연관계가 아니더라도 주거와 생계를 공유하는 경우를 가족으로 인식하고 있다. 이는 가족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상당히 넓어지고 유연해졌음을 보여준다.

여성가족부는 2024년 ‘모든 가족을 든든하게’라는 목표 아래 가족 서비스를 위한 가족센터의 온가족보듬사업을 강화해왔다. 기존에 개별적으로 운영되던 7개 가족 서비스를 ‘온가족보듬사업’으로 통합하고 1인 가구, 다문화가족, 청소년 한부모 등 가족 형태별로 구분해 서비스를 제공하던 운영방식에서 벗어나,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상담 등을 통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먼저 파악하고 가족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서비스를 탄력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이는 특정한 유형에 맞춘 가족 서비스가 아니라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누구나 도움이 필요한 가족에게 상담과 사례관리를 통해 가족 내 문제를 해결하고 관계를 개선하는 데 큰 의의가 있다.

온가족보듬사업의 서비스 내용은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부모-자녀상담, 부부상담, 이혼전·후상담 등 가족상담. 둘째, 지역사회자원연계 등의 사례관리. 셋째, 가족관계향상을 위한 교육·문화 프로

그램 및 자조모임 등 사회적 관계망 형성지원. 넷째, 긴급위기 상황에 직면한 가족에 대한 심리·정서지원을 포함한 긴급위기지원이다.

특히 보듬매니저가 파견돼 취학 전 아동, 초·중학교 재학 또는 이에 상응하는 연령대의 (손)자녀 및 만 24세 이하 청소년(한)부모에게는 학습정서지원을 통해 자기주도적인 학습습관 형성, 과목별 학습지도, 숙제지도와 부족한 기초학습 지도를 제공한다. 또한 사례관리대상 중 (조)부모 및 (손)자녀의 건강 약화 등 긴급 상황 발생 시에는 돌봄 관련 가사 활동, 외출 시 동행·부족, 말벗, 생활상 담 등의 지원도 진행하고 있다.

가족은 우리 삶에서 다양한 역할과 기능을 담당한다. 가족의 형태는 점점 다양해지고 유연성을 갖춘 새로운 양상으로 변화하고 있지만, 가족 간의 관계, 정서적 지지, 상호 존중 등을 통해 서로 믿고 의지하는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가족을 지원하고 접근하는 방식도 더욱 유연해지고 확대돼야 한다. 어떤 형태의 가족이든 관계의 어려움, 의사소통, 자녀양육에 대한 고민, 이혼·전후 상담, 가족교육 및 문화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언제든지 내가 사는 지역의 가까운 가족센터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권유한다. ‘모든 가족을 든든하게’ 하는 가족센터의 가족서비스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서 가족센터(www.familynet.or.kr)를 검색하면 ‘지역센터 바로가기’를 통해 내 지역의 가족센터를 찾을 수 있으며, 가족센터 대표전화(1577-9337)로도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독자투고

연말연시가 다가오면서 연하장이나 부고장 문자 스미싱이 극성을 부리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연말연시는 시민들 사이에서 지나가는 한 해에 감사 인사와 더불어 새해 복을 미리 전하는 연하장을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주고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시민들은 파스한 인사말에 모르는 번호일지라도, 연하장이 주로 오가는 연말연시를 노린 스미싱 범죄의 표적이 되기 쉽다.

이 밖에도 부고장과 청첩장은 물론, 각종 공과금 납세서를 가장한 사례도 많이 각별한 주의와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다.

연하·부고장 문자 ‘스미싱’ 주의보

통계를 보면 지난해 추석 명절 연휴가 겹치는 9-11월 나타난 스미싱 발생 현황과 비교하면, 연말연시를 틈타 전송되는 스미싱 건수가 61% 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매년 스미싱 범죄가 큰 폭으로 꾸준히 늘어난 데 더해, 올해가 전부 마무리되지 않았음에도 지난해보다 23% 더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스미싱 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확인되지 않은 문자메시지

의 인터넷 주소를 절대 클릭하지 않기 ▲스마트폰의 보안 설정을 강화하고 스마트폰 보안 앱을 활용해 주기 점검하기 ▲믿을 수 있는 공식 스토어에서 앱을 설치하기 등이다.

자칫 한 순간의 방심으로 큰 낭패를 입을 수 있는 만큼 모르는 수상한 문자는 절대 클릭해서는 안 될 것이다. 아울러 부모님이나 지인들에게도 이런 사실을 알려 사전에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홍보해주는 것도 예방에 효과적이다. <정성재·광양경찰서 경무계장>

*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하고싶은이야기·사진 등을 보내주세요
* 외부필자의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탄핵정국 속 무안공항 여객기 참사까지 착잡한 세밑

초유의 12·31비상계엄으로 비롯된 탄핵정국 속에 여객기 대형 참사까지 발생해 국민들은 착잡함을 지우지 못하고 있다. 특히 무안국제공항에서 작목 도중 일어난 사고로 광주·전남 거주민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시도민들은 더욱 안타까워하고 있다.

다불어민주당이 발의한 탄핵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사유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채해병 특검법 거부, 비상계엄 내란 행위 공모·목인·방조, 한동훈·한덕수 공동 국정운영 체제, 내란 상설특검 임명 회피,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 등 5가지다. 내란과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실제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않아 그 위헌·위법성을 알면서도 권한 없이 국무회의를 소집해 도했다는 점이 적시됐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총리 역할까지 도맡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되지 않아 대규모 인명 사고를 맞닥뜨리게 됐다. 최 대행은 탑승자 대부분이 희생된 현장을 방문, 지휘했으며 무안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정치권도 긴급회의를 소집해 모든 지원을 할 것이라며 한목소리를 냈다.

경제·심리적인 여력 없어도 펄펄 끓는 구세군 냄비

이례적인 경제 한파에도 불구하고 구세군 자선 냄비가 펄펄 끓고 있다. 총장부 우체국, 신세계백화점, 롯데아울렛 수원점 등에서 진행 중인 광주지역 모금액은 2천200여만원으로 잠정 집계된 최근 5년 평균을 웃돌았다.

힘들다고 하지만 더 힘든 이웃을 위한 나눔이다. 심시일반이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함께 참여하고 있다. 어린아이의 고사리 같은 손부터 80대의 어르신까지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매년 하는 일이라며 익숙해하기도 한다. 자선냄비 앞을 지나가다 QR 코드를 스캔한 후 온라인으로 마음을 전하거나 자원 봉사자들에게 먹거리를 건네는 이들도 있다. 찬바람이 부는 거리를 훈훈하게 만들고 있다.

물가와 환율이 요동치는 불안정한 상황의 연속이다. 민생은 바닥으로 곤두박질하고 있다. 경제적·심리적 여력이 없어 어수선한 분위기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 대체로 기부가 줄어드

민주당 등 아권은 내란은 아직도 진행형으로 진단하고 있다. 법적·정치적 책임을 피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공직자범죄수사처의 출석 요구를 연거푸 거부하고 있다. 한 총리는 형식적·절차적 과정인 헌법재판관 임명을 여야 합의를 구실로 마다했다. 정치권의 혼란이 계속되고 있다. 미온적 수사라는 비판도 거세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지사는 송년 기자회견에서 ‘더 단단한 대한민국’, ‘정의를 사랑하는 불굴의 정신’ 등의 표현으로 위기 극복을 당부하고 나섰다.

2024년 12월의 마지막 주말, 많은 눈이 내린 곳은 날씨에도 다시 5·18광장으로 나온 시민들은 ‘내란소극을 탄핵하라’는 구호를 연신 외쳤다. 아울러 한 총리도 동조했다고 주장하며 수사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 총리 탄핵소추까지 늦출 일이 아니었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인을 임명하고 내란 특검법을 수용해야 한다. 무안공항 항공기 사고도 기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수습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물론 여러 가능성만 분분한 원인을 철저히 밝혀져야 한다. 새해는 국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대한민국이 되길 바란다.

는 특성이 있으나 되레 너도나도 동참하고 있다. 탄핵 집회에서도 서로를 돕는 나눔 활동이 두드러지고 있다. 구세군 측도 올해는 정치적 혼란과 경기 불황으로 모금이 부진할 것으로 우려했는데 기우에 그쳤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걱정하고 돕고자 하는 선한 마음은 변하지 않았다. 여전히 우리 사회가 따뜻하고 서로를 배려하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뿌듯해했다.

희망의 새해가 다가오고 있다. 매년 겨울 울리는 종소리는 더 뚜렷하게 메아리치고 있다. ‘세상을 밝히는 빛(Light of Love)’. 구세군이 내건 주제다. 현장 모금은 끝났지만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후원은 12월 말 캠페인 종료까지 가능하다. 유독 힘들었던 2024년을 뒤로 하고,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하는 차별없는 나눔으로 모두가 따뜻한 연말을 보내는 중이다. 영하의 날씨는 눈독도 녹아내리고 있다.

아침물어는 詩 ing

곽호연



출근길 폐지 할배 리어카 밀어주고
건널목 불편한 몸 손잡느라 또 늦겠지
그때도 매일 아침은 함차게 걸었겠지

신기해 한결같이 내 안은 선배 같고
당당하면 겸손하고 싸늘하면 따뜻했다는
십년을 미리 본 빛이 되려 십년 선물했다

비 오면 더 설레서 함께 걸던 테마임도
계절없이 반겼으니 지금도 반겨주겠지
보리수 열매 익으면서 나는 너 보겠지
(시집 ‘비를 안아주었다’, 고요아침, 2024)

[시의 눈]

일찍 온다면 그이가 세 시간이나 늦는군요. 아마 한 할배가 폐지를 신고 끄는 리어카를 밀어주고 있었지요. 아니면, 다리 불편한 재혁이의 손을 잡고 오느라 퇴근길을 또 지체해나 봅니다. 이처럼 당신을 지켜보며 문득 내 안으로 차오르는 힘을 얻기도 합니다. 내 오랜 짝인 당신은 선배와도 같았습니다. 십년을 당신이 더 살았지만 되려 당신은 내게 그십년을 선물한 듯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함께한 길이었군요. ‘여보 나왔어!’ 오늘 당신은 땀냄새 풍기며 대문 개의 나를 반깁니다. 하지만 그게 한날 그림자라니요! 보리수 열매 익을 때 함께 따 먹자던 나무 아래, 그만 들어가자 해도 당신은 그림자로 덩실 웃고만 있습니다. 뚝 눈물이 떨어어집니다. 당신은 아직 그 자리에 있었지요? 당신 눈은 보리수 아래 이 눈은 눈물 되어 녹을까, 난 뺨을 찬바람에 내어놓습니다. 곽호연 시인은 2017년 ‘시조시화’ 신인상, 2021년 ‘좋은시조’ 동시조로 등단했고 이동주문학상 작품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는 화자의 목소리를 시에 옮길 때 독자에게 숨기는 방식으로 쓰며, 그 사물과 풍경 뒤 자신의 활자체를 뜯을새김해 보여주는 시인입니다. <노창수·시인>

광주매일신문 1991년 11월 1일 창간 http://www.kjdaily.com
회장 馬亨列 사장·발행·편집인 李庚秀 논설실장 金鍾民 편집국장 朴恩成
(우)161636 광주광역시 남구 천변로338번길 16 대표전화 (062)650-2000 구독신청·배달안내 (062)650-2022
편집부 650-2090 지역특집부 650-2060 광고문의 650-2099 FAX
정치부 650-2030 사진부 650-2080 마케팅본부 650-2070 광고국 650-2016
경제부 650-2050 논설실 650-2006 경영지원국 650-2011 편집국 650-2017
사회부 650-2040 TV본부 650-2009 사업본부 650-2007 업무국 650-2019
문체부 650-2065 서울지사(02) 786-9488 업무국 650-2020
·본지는 신문윤리규칙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2002년 4월 30일 등록, 등록번호 광주가10(日) ·구독료 월 15,000원 1부 800원